	<b>보 도 자 료</b>		
	보도	배포 즉시	배포
담당부서	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	문의	김성곤 팀장(02-3774-9380) 손예슬 대리(02-3774-9381)

## 제 목 : 2017 ETF·ETN시장 결산 및 2018 시장 운영 계획

### 2017 상반기 ETP 시장 결산 (요약)

- 한국거래소(이사장 정지원)는 ‘17년 ETF·ETN시장 분석 결과, 다양한 상품 도입을 통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기관 참여 확대 등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
- ETF시장 주요 특징으로는,

  - 신규상장이 사상최고인 74종목에 달하며, 사상 최초로 상장종목수 300개 및 순자산총액 35조원 돌파
    - \* 연도별 신규상장 종목 수 : ('14) 26 → ('15) 45 → ('16) 66 → ('17) 74
    - \* 상장종목 및 순자산총액 : ('16) 256종목 / 25.1조원 → ('17) 325종목 / 35.6조원
  - 특히, 신상품인 **채권형 Active ETF가 도입되면서** 그간 **지수 추종형(Passive) 상품으로 국한되던 ETF시장에 운용 재량권 (Active)이 허용**
  - **우본 차익거래와 더불어 은행·보험·연기금 등 기관참여가 확대되면서 ETF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**
    - \* 일평균 거래대금 : ('16) 7,900억원 → ('17) 9,792억원, 24.0% ↑
    - \* 기관 거래비중 : ('16) 19.4% → ('17) 25.2%, 5.8%p ↑
  - **일반 펀드 대비 높은 수익율을 보이면서 ETF 순유입 자금 규모가 4.3조원에 달하는 등 ETF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**
    - \* 연도별 순유입 자금규모(조원) : ('14) 0.4 → ('15) 0.7 → ('16) 1.3 → ('17) 4.3

○ 특히, 코스닥 150 ETF가 연간수익률 상위 1,2위를 모두 차지하면서, ETF 內 코스닥 관심도 및 활용도를 증대

\* ETF 연간 수익률 상위 종목 : (1위)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(132%),  
(2위)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(129%)

- 코스피 활용 ETF 대비 5% 수준이던 코스닥 지수 ETF 비중이 '17년말 기준 13% 수준까지 확대

\* 코스피 vs 코스닥 ETF 순자산총액 : ('16) 16조원 vs 0.7조원 → ('17) 22조원 vs 3조원

#### ■ ETN시장 주요 특징으로는,

○ 손실제한형·원자재 ETN 등 60종목이 신규상장되며, 상장종목수 184개 및 지표가치총액 5.2조원 규모로 성장

\* 연도별 신규상장 종목 수 : ('14) 10 → ('15) 68 → ('16) 54 → ('17) 54

\* 상장종목 및 순자산총액 : ('16) 132종목 / 3.5조원 → ('17) 184종목 / 5.2조원

- 특히, 손실제한 ETN이 도입되면서 최대손실은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투자수단을 제공

○ 원유·천연가스 등 원자재 ETN 거래 증가로 거래규모도 전년 대비 39% 증가

\* 일평균 거래대금 : ('16) 323억원 → ('17) 449억원, 39.0% ↑

- 거래 증가와 더불어, 실제 보유금액을 의미하는 투자자 매출 또한 전년 대비 3배 이상 크게 증가

\* 투자자 보유금액 : ('16) 1,052억원 → ('17.12) 3,765억원

○ 부문별로는 '국내섹터', '업종테마', '해외원자재' 등이 높은 수익률과 더불어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표지수 중심인 ETF 시장과의 차별화에 성공

\* ETN 연간 수익률 상위 종목 : (1위) QV 바이오 TOP5 ETN(159%),  
(2위) QV 2차전지 TOP5 ETN(129%)

■ (문제점) 다만, **저유동성, 글로벌 상품 부족** 등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

- 일평균 거래량 5만주 이하의 **저유동성 종목이 전체의 73%(238종목)**에 달할뿐만 아니라, 스프레드율 또한 0.31% 수준으로 높은 수준
- 아프리카, 남미 등 **신흥국 대표지수 상품**이 여전히 부족하고, 상품성 높은 글로벌 ETP 중 국내 미도입 상품이 존재
- 또한, 시장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**체계적인 시장관리 필요성**도 제기
  - ETF 시장의 경우, 시장규모가 최근 35조원까지 성장하면서 시장공사·공시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

\* 시장조치건수 : ('16) 6,680건 → ('17) 10,132건, 51.6% ↑

■ (향후계획) 향후 거래소는 **유동성 확대, 신상품 확충** 노력과 더불어 **안정적 시장운영**에 중점을 두고 시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

- 해외지수 및 국내 섹터 ETF 대상 유동성 기여자 제도\*를 도입하여 저유동성 종목을 유동성 확대를 도모할 계획

\* 유동성 기여자(LC) 제도 : 저유동성 ETF에 한해 유동성 기여자(비LP & 해외 유동성공급업자)를 선정하여 호가제출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

- 더불어, 국내 주식형 ETF의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ETF LP의 헤지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계속적으로 건의
- 코스닥·신흥국 등 글로벌 상품, 미도입 글로벌 대표상품 등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**금년에도 다양한 ETF·ETN 신상품을 개발 및 상장**할 계획
- 또한, 실질 유동성·스프레드율·괴리율 등 시장 주요 사항을 **상시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**을 구축하여 안정적 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

# I 2017 ETF·ETN 시장 현황

## 1 시장규모 확대

	ETF			ETN		
	2016	2017	증감 (%)	2016	2017	증감 (%)
상장종목수	256	325	27.0	132	184	39.4
시가총액* (조원)	25.1	35.6	41.9	3.5	5.2	50.5
거래대금** (억원)	7,899.6	9,792.0	24.0	323.0	448.8	39.0

\* ETF는 순자산가치총액, ETN은 지표가치총액 기준

\*\* 해당 년도 일평균 거래대금

□ (상장종목수) 채권형 Active ETF, 손실제한형 ETN 등 新유형 ETP 상품들이 대거 출시되며 상장종목수를 포함한 시장 규모 증가를 견인

\* (ETF) 256종목('16.12) → 325종목('17.12), 69종목↑(27%)

(ETN) 132종목('16.12) → 184종목('17.12), 52종목↑(39%)

○ (ETF) 금년에만 74종목이 상장되며, 아시아 최초로 상장종목수 300개를 돌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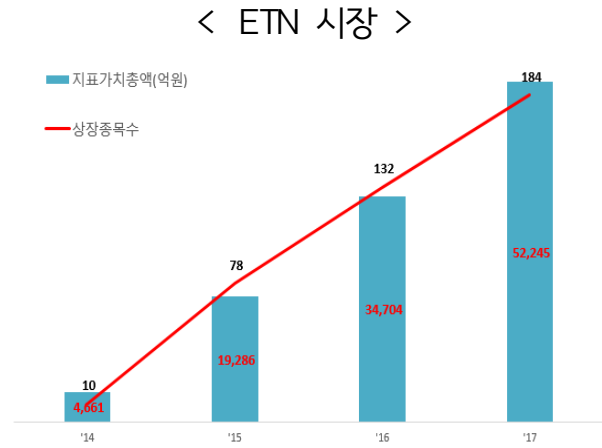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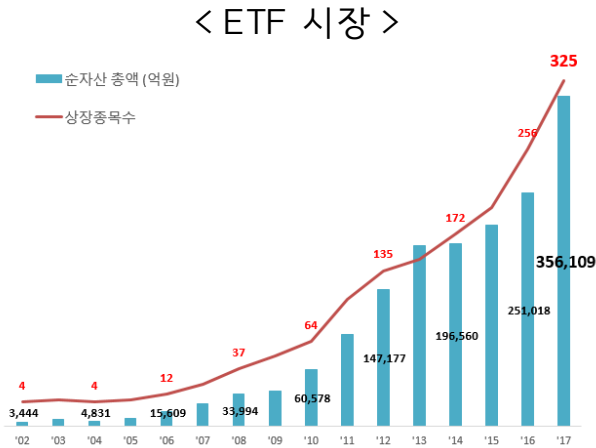
- 특히,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ctive ETF 7종목이 상장되었으며, 향후 시장 니즈에 맞춰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지속 상장될 예정

○ (ETN) 손실제한형·원자재 ETN 등이 다수 상장되며, 전년 대비 52종목 증가

- 손실제한형 ETN은 3월 도입 이후 25종목 상장되었으며, 그 중 2종목은 조건에 충족되어 조기 상환됨

□ (순자산총액) 지속적인 신상품 공급 및 국내외 주식시장 가격 상승으로 ETF·ETN시장 모두 시가총액 사상최고치 기록

\* (ETF) 25.1조원('16.12) → 35.6조원('17.12), 41.9% ↑  
 (ETN) 3.5조원('16.12) → 5.2조원('17.12), 50.5% ↑



□ (거래대금) 국내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ETP시장 거래규모 크게 증가

\* (ETF) 7,900억원('16년) → 9,792억원('17년), 24.0% ↑  
 (ETN) 323억원('16년) → 449억원('17년), 39.0% ↑

○ (ETF) 기관 거래 및 코스닥·코스피 방향성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평균거래대금은 9,792억원으로 전년도 7,900억원 대비 24% 증가

- 특히, 우본의 차익거래 개시(4.28) 이후 거래가 급격히 증가

\* (1월)6,411억→(3월)7,556억→(5월)11,945억→(7월)8,980억→(9월)9,522억→(11월)15,205억

- '17년 일평균 거래대금 1위 종목은 'KODEX 200(2,153억원)'

○ (ETN) 원유·천연가스 등 원자재 ETN 거래 증가로 거래규모가 전년 대비 39% 증가

- '17년 일평균 거래대금 1위 종목은 '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(192억원)'이며, 거래 상위 10종목 중 7종목이 원자재 레버리지(±2X) 상품

## 2 투자자별 거래동향

- (ETF) 기관 및 외국인의 ETF 투자가 확대되면서 ‘16년 대비 기관·외국인 거래비중이 증가하고, 개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
  - 기관의 거래규모 증가는 우정사업본부의 ETF 활용 대규모 차익거래 개시에 기인
    - \* 우본 등 국가·지자체 ETF 순매수금액 : (‘16년) 210억원 → (‘17년) 11조 3천억원 (537배↑)
  - 또한, 보험·은행·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ETF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ETF시장 활성화를 견인
    - \* 기관별 ETF 일평균거래대금 증가 추이(‘16년→‘17년)
      - 보험(146억원→227억원), 은행(185억원→418억원), 연기금(48억원→99억원)
  
- (ETN) ETN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이 126억원 증가하며, ‘16년 대비 외국인 거래비중이 증가하고, 기관·개인·LP는 상대적으로 감소

< 투자자별 거래대금 및 비중 >

	ETF			ETN		
	2016 (비중)	2017 (비중)	증감 (%p)	2016 (비중)	2017 (비중)	증감 (%p)
LP	1,588 (20.1)	2,118 (21.6)	530 (1.5)	154 (47.7)	213 (47.4)	59 (0.2)
개인	3,256 (41.2)	3,307 (33.8)	51 (-7.4)	99 (30.8)	135 (30.0)	35 (-0.8)
기관	1,533 (19.4)	2,467 (25.2)	934 (5.8)	68 (20.9)	92 (20.6)	25 (-0.4)
외국인	1,523 (19.3)	1,900 (19.4)	377 (0.1)	2 (0.6)	9 (2.0)	7 (1.4)
합계	7,900 (100)	9,792 (100)	1,892 (-)	323 (100)	449 (100)	126 (-)

\* 해당 년도 일평균 거래대금(억원)

- (ETF) '17년 누적 수익률 기준 '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'가 132.5%로 1위를 기록
  - (국내형) 전기전자 업종을 필두로 IT, 헬스케어 등 업종(섹터) ETF 및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가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
    - \* 2017 연간 수익률 : 코스피200 지수 24.7%, 코스닥 150 지수 51.6%
    - 수익률 상위 1,2위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이 차지하였으며,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상품은 'KODEX 코스닥150 선물인버스(-38%)'
  - (해외형) 최근 인도·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 성장세에 따라, 해외 대표지수 레버리지 상품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
    -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'TIGER 이머징마켓 MSCI 레버리지 (합성H)(78%)'이 차지하였으며,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상품은 'KINDEX 골드선물 인버스 2X(합성H)(-22%)'
- (ETN) '17년 누적 수익률 기준 'QV 바이오 TOP5 ETN'이 159.2%로 1위를 기록
  - (국내형) 올 하반기 코스닥 바이오·차전자·미디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 ETN들이 높은 수익률 기록
    - 반대로 관련 업종의 인버스 상품들이 저조한 성과를 내며, 수익률 최하위 상품은 '미래에셋 인버스 미디어엔터 Core5 ETN(-42%)'
  - (해외형)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라, 해외 대표지수 레버리지 상품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
    - 수익률 최상위 상품은 '삼성 레버리지 China A50 선물 ETN(H)(68%)'이 차지하였으며, 수익률 최하위 상품은 '신한 천연가스 선물 ETN(H)(-43%)'

## II 2017 주요 성과 및 특징

### 1 ETF 시장

① (Passive 상품의 귀환, ETF 제2의 도약) ETF가 액티브 펀드를 포함한 장외 펀드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, Passive 상품 투자가 재조명 됨

- 그 결과 ETF 투자 또한 크게 증가하여, '17년 한해에만 4.3조원 가량 자금이 순유입되며 ETF 순자산총액 30조원 시대를 개막
- 특히, 시장 방향성 투자시 저비용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탁월한 투자수단임을 입증

② (코스닥 투자수단으로 적극 활용) 코스닥 150 ETF가 연간수익률 상위 1,2위를 모두 차지하면서 ETF 내 코스닥 관심도 및 활용도를 증대

\* ETF 연간 수익률 상위 종목 : (1위)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(132%),  
(2위)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(129%)

- 이에 따라, 코스피 활용 ETF 대비 5% 수준이던 코스닥 지수 ETF 비중이 '17년말 기준 13% 수준까지 확대

\* 코스피 vs 코스닥 ETF 순자산총액 : ('16) 16조원 vs 0.7조원 → ('17) 22조원 vs 3조원

- '17년 코스닥 150 ETF 11종목에 순유입된 자금은 1.4조원에 이르며, 인버스·레버리지 종목 포함 일평균 거래대금은 1,27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

#### < 코스닥 150 ETF 현황 >

구분*	종목수	기초지수	순유입 (억원)	일평균 거래대금 (억원)		
				2016	2017	증감
1배	4	코스닥 150	7,384	117	308	191 (163%)
-1배	3	코스닥 150 선물	6,248	181	706	525 (290%)
2배	4	코스닥 150	693	322	261	-62 (-19%)
합계	11종목	-	14,325	621	1,275	654 (105%)

\* 1배는 정방향, -1배는 인버스, 2배는 레버리지 종목



### ③ (다양한 신상품 도입) 국내외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한 신상품 도입으로 ETF시장 상품 라인업 확충

- (Active ETF 도입) 그동안 **지수 추종형(Passive) 상품으로 국한**되었던 ETF시장에 **운용 재량권이 허용되는(Active) 새로운 상품**을 도입함으로써, ETF시장에 **새로운 패러다임 제시**

- 다양한 만기의 채권형 펀드를 **공모펀드 대비 저렴한 보수로 제공\***하고,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**투자자 선택 폭 확대**

\* 채권형 Active ETF 보수 : 0.07~0.14%, 유사 채권형 공모펀드 보수 : 0.01~3.16%

- (글로벌 신성장주) 글로벌 4차산업 및 기술주, 국내 반도체 등 신성장 업종에 투자하는 ETF가 대거 상장

\* KBSTAR 미국4차산업IT(합성H), KINDEX 미국4차산업인터넷(합성H), ARIRANG 나스닥기술주, KODEX IT 하드웨어/소프트웨어, KBSTAR 200 IT, TIGER 글로벌자원생산기업(합성H) 등

- (글로벌 인프라 투자) 전세계 14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인프라 관련 주식(에너지·교통·유틸리티 3개 섹터)에 편리하게 분산투자 가능

\* TIGER S&P글로벌인프라(합성), KODEX S&P글로벌인프라(합성), ARIRANG S&P글로벌인프라(합성)

## 2 ETN 시장

### ① (ETN 시장 차별화 성공) ‘국내 섹터·업종 테마’와 ‘해외 원자재’ ETN이 ‘17년 높은 수익률에 따른 거래 증가와 함께 ETN시장 특화상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

- (국내 섹터·업종테마) ETN 수익률 상위 종목 중 대다수가 국내 섹터·업종테마 종목으로 섹터 로테이션 투자자에게 저비용·고수익 상품으로 유용하게 활용

- (해외 원자재) 거래대금 상위 종목 다수가 해외 원자재 레버리지( $\pm 2X$ ) 상품으로 원유·천연가스 등 단기 투자 상품으로 개인 및 기관 (금융 Prop)에게 각광

※ 단,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므로 롤오버 손익과 레버리지·인버스 상품의 경우 복리화 효과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투자유의 필요

< ETN 수익률 TOP5 >

종목명	수익률* (%)
QV 바이오 TOP5	159.2
QV 2차전지 테마	86.83
삼성 바이오 테마주	79.76
삼성 레버리지 China A50 선물(H)	68.02
미래에셋 미디어엔터 Core5	67.42

\* 연간 누적 수익률

< ETN 거래대금 TOP5 >

종목명	거래대금* (억원)
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	95.8
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(H)	52.1
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(H)	40.4
삼성 미디어 테마주	24.5
삼성 화학 테마주	20.7

\* 일평균 거래대금

② (손실제한 ETN) 최대손실은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수단을 제공하고자 손실제한 ETN을 도입

- 은행 신탁 ■ 보험 등에서 저비용·안정적 상품인 손실제한 ETN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- 향후 시장 수요에 맞춰 장외 ELS 시장 인기상품인 원금보장형(ELB)·수익개선형(스텝다운형) 등 구조화 상품을 확대·도입할 계획

③ (투자자 매출 증가) 지속적인 신상품 공급 및 ETN시장 인지도 제고에 따라 투자자 매출이 전년 대비 3.5배 이상 증가

\* 투자자보유금액 : 1,052억원('16.12) → 3,765억원('17.12), 258% ↑

- 투자자보유금액 기준 1위 종목은 'TRUE 코스피양매도(1,473억원)'로 올해 상장 이후 빠른 속도로 기관 및 개인에게 판매되고 있으며,
  - 2위는 '삼성 KTOP30(614억원)', 3~5위는 원자재 레버리지( $\pm 2X$ ) 종목 順

#### 1 저유동성 ETF 활성화

□ (현황) '17년 시장 전체 유동성은 개선\*되었으나, 여전히 **종목간 유동성 편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유동성 종목에 유동성 부여가 필요**

\* ETF 전종목 평균 스프레드 비율 : 0.36%('16년) → 0.27%('17년), 25%p↓

○ (저유동성 종목) 저유동성 종목\*이 전체의 73%(238종목)에 이르며, 거래량 하위 종목군의 평균 스프레드율은 상위 종목군 대비 0.14%(86%p) 높은 수준

\* 저유동성 종목 기준 : 일평균 거래량 5만주 이하로 거래량 93위 이하 종목

- 특히, 국내 섹터 ETF가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적고, 평균 스프레드율도 크게 나타나는데, 이는 LP가 헤지에 따른 각종 비용\*을 LP호가에 반영하기 때문

\* 기초자산 매도에 따른 거래세, 담보에 따른 금융비용 등

\*\* KOSPI20과 같이 동일 기초자산의 선물이 있는 종목은 선물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헤지할 수 있으나, 실물 주식 바스켓으로 운용해야 하는 종목은 주식 매도시 거래세가 발생

< 거래량 순위별 평균 스프레드율 >

거래량 순위	2016년	2017년	증감
1~10위	0.07	0.07	-
11~30위	0.14	0.12	-0.02
31~50위	0.17	0.15	-0.02
51~100위	0.30	0.20	-0.10
101~*	0.44	0.31	-0.13

\* 저유동성 종목군

< 국내-해외 종목간 평균 스프레드율 >

기초자산	2016년	2017년	증감
국내	0.29	0.24	-0.05
해외	0.55	0.34	-0.21

○ (해외 종목) 거래량과 무관하게 해외 기초자산 상품의 경우 국내 상품보다 평균 스프레드율이 0.1%(42%p) 이상 큰 양상을 보이며, 이는 해외 종목의 헤지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데 기인

- 국내 LP가 해외 기초자산을 직접 헤지하려면 환헤지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, 이를 반영하여 국내 종목보다 평균 스프레드율이 더 크게 나타남

□ (개선방안) '18년에는 저유동성 ETF 대상 유동성 제고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

○ (유동성 기여자 제도 도입) 해외지수 및 국내 섹터 ETF에 한해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종목의 스프레드 축소 및 거래 활성화 효과 기대

\* 유동성 기여자(LC) 제도 : 저유동성 ETF에 한해 유동성 기여자(비LP & 해외 유동성 공급업자)를 선정하여 호가제출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

○ (LP헤지거래 비과세 추진) 국내 주식형 ETF의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ETF LP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계속적으로 건의

## 2 국내 미도입 신상품 확충

□ (현황) ETP 총 509종목(ETF 325종목, ETN 184종목)이 상장되면서, 국내외 기초자산 대부분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상품 라인업 완성

○ 이는 국내 상장된 ETP 상품만으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증권사 및 운용사에서는 ETP 편입 WRAP 서비스 등 관련 상품을 확대·개발하는 추세

○ 다만, 신흥국 대표지수 상품과 고배수 ETP와 같은 국내 미도입 글로벌 대표 상품이 미도입된 상황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

< 국내외 ETP 상품 라인업 >

		ETF		ETN
국내	주식	시장대표	코스피200, 코스닥150, KRX100, KTOP30, MSCI Korea	KTOP30, 코스피200(손실제한형)
		업종섹터	건설, 금융, 바이오, 반도체, 에너지화학 등	건설, 금융, 에너지화학, 정보기술 등
		전략	배당, 변동성, 가치, 성장, 구조화, 혼합/퀀트 등	배당, 성장, 변동성, 구조화 등
		규모	대형주, 중형주	대형주
	채권	통안채, 국고채, 단기채권, 회사채 등	-	
	통화	달러	유로선물, 엔선물	
	혼합	주식+채권	주식+달러 등	
해외	주식	시장대표	미국, 중국, 홍콩, 일본, 인도, 베트남, 대만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유럽, 독일, 러시아 등	미국, 유럽, 중국, 인도, 호주, 인도네시아 등
		업종섹터	헬스케어, 인프라, 정보기술, 4차산업, 금융, 에너지 등	산업재, 헬스케어, 정보기술
		전략	배당, 구조화	가치, 성장, 배당 등
	채권	하이일드, 미국장기채	중국 국채	
	통화	-	달러	
	원자재	원유, 금, 은, 구리, 콩, 혼합 등	원유, 금, 은, 구리, 아연, 니켈, 옥수수, 콩, 에너지인프라, 혼합 등	
	부동산	리츠	리츠	

- (개선방안)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에도 다양한 ETF·ETN 신상품을 개발 및 상장할 계획
- (업계 동향 반영) 투자자와의 접점에서 신상품 개발을 염두하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수요 상품 위주로 도입
  - 코스닥 섹터(바이오, 4차산업 등) 등 상품성 있는 코스닥 ETF·ETN 상품을 추가 발굴하여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기여
  - 남미, 아프리카, 동유럽 등 신흥국 시장 대표지수 상품을 확충하여 글로벌 자산배분 라인업을 완성
  - 국내 미도입 글로벌 시장 대표 상품\*의 도입을 검토하여 해외 직접투자 수요를 국내로 흡수
- \* MLP, 고배수(±3X) ETN 등
- (재간접 ETP시장 확대) ETF에 투자하는 ETN, ETN에 투자하는 ETF, ETF에 투자하는 ETF 등 재간접 상품을 활성화하여, 양시장 상호발전에 이바지
  - 또한, 재간접 ETP는 자산배분, 섹터로테이션 등의 전략 구현에 필수적인 형태로 상장 WRAP Account 상품 역할이 가능
- (구조화 ETN 확대 검토) 금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손실제한 ETN과 유사한 구조화 ETN 상품 개발을 검토하여, 원금보장형(ELB)·스텝다운형 등 장외 ELS시장 수요를 장내로 유인

### 3 시장 관리 합리화

- (시장 모니터링 강화) 실질 유동성, 스프레드율, 괴리율 등 시장 주요 사항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
- (시장 규제 완화 및 개선) 업계 포함 시장 참여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, 매매제도\*를 포함한 각종 규제사항을 검토 및 개선할 계획

\* ETP 분할합병 제도 도입, 호가단위 다변화 등